전남대생들, 농업용 로봇 경진대회서 최우수상

전남대학교 디지에그팀이 최근 전주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농촌진흥청 60주년 기념 농업용 로봇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사진〉

전남대 디지에그(DigiAg) 팀은 실제 사과 과수원을 축소 모형화해 만든 경기장에서 로봇이 열매의 온도를 인지해 열 사이로 자율주행하며 정상 과실과 질병에 감염된 과실을 파악하고 그 갯수를 각 과수별로 지도화하는 내용을 선보여 최우수상을 거머쥐었다.

이번 농업용 로봇 경진대회는 농촌진흥청 설립 60주년 기념 행사의 하나로 열렸으며, 전국 대학에서 15개 팀이 참가해 8개 팀이 본선에서 경연을 펼쳤다.

전남대 디지에그팀(지도교수 이경환)은 융합바이오시스템기계공학과 김민재, 유도헌, 엄근빈 학부생과 김도환, 파블로 대학원생으로 구성됐다.

이경환 지도교수는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최고의 노력과 열정을 보여준 학생들이 자랑스럽고, 이들이 이끌 에그리텍(Agri-Tech)의 혁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조선대, 전국 대학생 태권도 학술대회 최우수상

조선대학교 학생들이 전국 대학생 태권도 학술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사진〉

조선대학교는 최근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오응환·이하 태권도 재단)이 최근 태권도의 날을 맞아 태권도원에서 개최한 '전국 대학생 태권도 학술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상금 300만원을 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조선대 장혜림·최수영씨는 '온라인 태권도대회 참가자의 심판판정 인식과 참여만족 및 재참여 의사의 관계'를 주제로 판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연구내용을 발제했으며 태권도의 다양한 학술적 가능성을 제시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우수상은 서울대 조은세상·김민서·김영연씨와 신한대 윤석주·변대한·박세원씨가 차지했다. 장려상은 가천대, 용인대에게 돌아갔다.

한편 태권도계 최초의 대학생 학술대회로 평가받는 이번 대회는 MZ세대인 태권도 전공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태권도계에 반영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태권도진흥재단이 주최·주관하고 세계태권도연맹과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가 공동후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

남구구립늘봄어린이집 개원 1주년 난타공연·체험활동 등 기념 행사

광주시사회서비스원(원장 조호권)에서 위탁 운영하는 남구구립늘봄어린이집은 최근 개원 1주년을 맞아 '우리가 함께해야 늘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사진〉

개원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늘봄어린이집의 아동과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오전부터 진행된 행사는 아이들과 학부모의 난타공연을 시작으로 푸드트럭 운영과 놀이기구 체험활동 등이 진행됐다.

특히 이 날 행사 중 운영한 푸드트럭 수입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전액 기부해 아이들의 밝은 웃음을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쓰일 예정이다.

남구구립늘봄어린이집 우정숙 원장은 "'서로 사랑하는 아이, 신나게 놀이하는 아이, 꿈을 키우는 아이'라는 운영철학을 바탕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9월 1일에 설립된 남구구립늘봄어린이집은 광주시사회서비스원에서 위탁 운영 중인 국공립어린이집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국문예위, 유니버설발레단과 공연자료 수집 협약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예술기록원은 (재)효정한국문화재단의 리틀엔젤스예술단, 유니버설발레단과 공연예술자료의 수집, 보존,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교류하고 협력하고자 하는 업무협약을 15일 유니버설아트센터 회의실에서 체결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공〉

동신대 학생들, 태풍 피해 농가 일손돕기 행사

동신대학교는 지난 17일 나주시 세지면 일원에서 태풍 피해를 입은 농가를 위해 농촌일손돕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농촌일손돕기는 지난 8월 동신대와 총학생회, 나주시가 농촌지역 인력난 해소 등 지역사회 상생활동을 위해 맺은 '사회공헌 협력 업무 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동신대 제공〉

인사

◆사학연금
▲연금사업본부장 김훈중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TV프로그램 2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SBS/KBC
6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광장	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0 걸어서 세계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해 볼만한 아침 M&W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생방송 오늘 아침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3부
8	25 아침마당		50 비밀의 집(재)	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50 좋은 아침
9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45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으라차차 내 인생(재)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꾸러기 식사교실(재)	30 특집 살맛나는 오늘
11	00 KBS네트워크특선 언니랑 쏠래 30 영상앨범 산(재)	00 법대로 사랑하라(재)	15 헬로키즈 글로벌 동물 뉴스 45 프린세스 바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15 개는 훌륭하다(재)	00 12 MBC 뉴스 20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스페셜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전국 TOP 10 가요쇼(재)
1	00 KBS 네트워크 특선 세상다반사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재)	50 영화가 좋다(재)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0 국회 대정부 질문 〈외교·통일·안보〉		30 국회 대정부질문 외교, 통일, 안보	00 뉴스브리핑
3		00 KBS 뉴스타임 10 반짝반짝 캐치 티니핑(재) 30 TV 유치원	55 기분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재)	55 5 MBC 뉴스	00 좋은아침 스페셜
5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50 통합뉴스룸 ET	10 호적메이트 스페셜	00 SBS 오뉴스 50 남도스럽게 스페셜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05 본방을 보자	20 닥터 365 25 KBC뉴스와이드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생방송 토론740	50 황금가면	05 비밀의 집 40 MBC 뉴스데스크	50 SBS 8 뉴스
8	30 으라차차 내 인생	30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30 KBC 8 뉴스
9	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50 법대로 사랑하라	00 호적메이트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10	00 시사기획 창 50 더 라이브		30 PD수첩	00 신발 벗고 돌싱포맨
11	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00 오케이? 오케이!	30 100분토론	30 식자회담-국가발전 프로젝트
12	10 생활의 발견	15 아이 러브 스포츠 40 꿀잼 영화가 좋다(재)	55 TV예술무대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클래스 e
05:50 한국기행
06:10 세계테마기행
07:00 꼬마버스 타요
07:15 출동! 슈퍼윙스
07:45 고고다이노 우리동네공룡
08:00 딩동댕 유치원
08:20 로보카 폴리
08:35 동그리섬의 버네사
08:50 띠띠뽀 띠띠뽀
09:05 슈퍼두퍼 잉글리시
09:20 빅 블루
09:35 타타와 쿠마
09:40 우리집 유치원
10:10 한국의 둘레길
10:3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1:20 세계테마기행
12:00 EBS 뉴스 12
12:10 다큐영화 길 위의 인생
13:00 당신의 활력충전소
13:50 EBS 다큐프라임
14:45 바닷가 사람들
15:35 레전드히어로 삼국전
16:05 영어 스토리 타임
16:15 페파 피그
16:25 슈퍼두퍼 잉글리시(재)
16:40 딩동댕 유치원(재)
17:00 EBS 뉴스
17:20 못 말리는 어린 양 숀
17:30 뒤죽박죽섬의 빅풋패밀리
18:00 생방송 뭐든지 해결단
19:00 말괄량이 삐삐
19:30 한국의 둘레길
19:50 극한직업
20:40 세계테마기행
〈로망 가득 프랑스
-알프스 산골 살이, 사부아〉
21:30 한국기행
〈함께라서 좋아 2부
산골 노부부가 사는 법〉
21:50 EBS 다큐프라임
22:45 건축탐구 - 집
23:35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20일 (음 8월 25일 丙子)

☎ 010-9790-8237

子 36년생 문젯거리로 비화될 수 있다. 48년생 지속성이 득리로 이끌 것이다. 60년생 본심과는 달리 부응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72년생 거의 모든 재앙은 무리함에서 비롯된다는 평범한 진리를 인식하자. 84년생 근본 원인부터 정확히 찾아내야겠다. 96년생 불가능하다고 여겨온 일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단계에 와 있다. 행운의 숫자 : 13, 69

丑 37년생 목적하는 바와 동떨어져 있다면 무의미하다. 49년생 뒤탈은 없을 것이니 마음먹은 대로 행해도 된다. 61년생 방치했다가는 갈수록 악화할 수도 있느니라. 73년생 실행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다. 85년생 체계적으로 처리하지 않으면 탈이 나리라. 97년생 오늘의 지출은 미래에 대한 투자가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6, 68

寅 38년생 주위의 환경에 따른 변수가 크니 대안을 마련하자. 50년생 대사를 도모하는 판국이 펼쳐지겠다. 62년생 복잡다단한 난제가 놓여 있도다. 74년생 확실하지 않으면 관여해서는 아니 될 것이니 무의미하다. 86년생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해야 할 때가 되었다. 98년생 핵심 가치를 집약할 줄 아는 요령이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78, 74

卯 39년생 기존의 판세를 역류시킬 만한 결정적인 타개책이 보인다. 51년생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대응할 수 있다. 63년생 임시적인 방편으로 도모한다면 무의미하다. 75년생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이겨 내고 단연코 이루어 내는 쾌거가 있다. 87년생 득실의 차가 작으니 큰 의미는 없겠다. 99년생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행운의 숫자 : 10, 78

辰 40년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만전을 기하자. 52년생 분산된다면 핵심에 집중하기 힘들어진다. 64년생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헛수고에 지나지 않을 것이니 포기하라. 76년생 착각의 늪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엄청난 해를 입게 된다. 88년생 정면 돌파가 최상의 방책이 될 것이다. 00년생 다자간의 균형이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37, 83

巳 41년생 가득 찬 것 같지만 허술하도다. 53년생 바라던 것이 생길 수도 있으니 기대해도 된다. 65년생 특별히 유념해야 뒤탈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77년생 무리가 따르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보자. 89년생 반드시 크기와 비례하지 않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라. 01년생 전체를 아우르고자 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행운의 숫자 : 40, 94

午 42년생 기세가 한창 성하여 극상에 이르겠다. 54년생 정면으로 돌파해야 위기를 모면한다. 66년생 본질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해결책을 찾지 못한다. 78년생 발 벗고 나선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90년생 강력한 역학 관계하에 놓이는 판세이니라. 02년생 사람의 마음이 다 같을 수는 없음이니라. 행운의 숫자 : 42, 65

未 43년생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처리해야 할 일이 많다. 55년생 시원스럽게 진행되지만 장기적이지는 않다. 67년생 천하가 다 알다시피 두말하면 잔소리다. 79년생 세절목에 신경 쓰다가 감각을 놓칠 수다. 91년생 목표를 좀 더 높게 설정해도 무방하다. 03년생 방비하지 않으면 임박하여 혼란에 빠지면서 손실을 부른다. 행운의 숫자 : 23, 86

申 44년생 투철한 소명 의식이 절실한 때이다. 56년생 겸손함과 겸소함 속에서 복이 피어나리라. 68년생 횃대에 동저고리 넘어가듯이 걸리는데 없이 가볍게 처리될 것이다. 80년생 손을 맞잡고 함께 가야 이룰 수 있는 도량을 구축한다. 92년생 청산되지 않은 것은 소모적일 뿐이다. 04년생 계속하는 것이 실효적이다. 행운의 숫자 : 48, 88

酉 33년생 근린 관계의 협조 체제가 절실하다. 45년생 내용이나 관계가 부실하다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 57년생 곧 될 것 같으면서도 차일피일 미뤄질 수도 있겠다. 69년생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는 큰일을 당할 수도 있다. 81년생 어려움은 경험의 밑천이 될 것이다. 93년생 겉과 속이 전혀 다른 형국이로다. 행운의 숫자 : 35, 52

戌 34년생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옳다. 46년생 흐르는 물은 절대로 썩지 않는 법이다. 58년생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라면 무용지물이다. 70년생 필수적인 것을 생략하려 한다면 무리가 따른다. 82년생 배가 된 노력이 경주돼야 승산이 있다. 94년생 너무나 크고 충격적인 일이라서 아무 경황이 없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1, 81

亥 35년생 무가치하다면 의미를 부여할 이유가 없느니라. 47년생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판별할 수 있을 것이다. 59년생 상대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71년생 마음은 있으나 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83년생 과잉 집착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다. 95년생 근본적인 동기 부여가 절실한 때이다. 행운의 숫자 : 08, 72